

국교생상습성폭행 10년선고

국민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
해 출산에까지 이르게 한 50대 아
파트 경비원에게 검찰의 구형량보
다 높은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
됐다. 부산지법 제3형사부(재판장
박태범 부장판사)는 15일 부산 북
구 한 아파트의 전 경비원 공영옥
(57)씨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
죄 등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
선고했다.

공씨는 지난해 5월부터 4개월
동안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경
비원으로 일하면서 같은 아파트에
사는 김아무개(12·당시 국교 5년)
양을 자신의 아파트 등으로 유인
하여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임신
까지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
역 7년을 구형받았다.

94

6.16